

【 국내금융 뉴스 】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장성 확대

□ 국민건강보험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월 보험료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한 2조 8천억원을 기록한 반면 지출이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한 3조 1천억원에 달해 3천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으며, 이는 작년 전체 적자규모가 1조 3천억원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임.
- 5.9%의 보험료 인상분이 포함된 1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아직 거수되지 않았고 계절 독감 등의 영향으로 급여비 지출 증가가 나타나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적자규모임.
-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의 누적수지가 2009년 2조 2천 5백억원, 2010년 9천 5백억원, 2011년 1월 6천 6백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어 재정의 고갈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와 관련한 논쟁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문제의 제기는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무상의료를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확대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
- 보험료의 인상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재정 악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보장성 확대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징수율 제고, 보험료 수입 확충방안, 허위·부당청구 적발 고도화, 약가관리 강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 요구가 계속될 경우 재정에 잠재적 부담은 증가할 것임.

(국민건강보험 재정 급속 악화 등, 연합뉴스 등, 2/16)